

미세혈관의 Vasospasm에서 Local Spasmolytic Agents의 반응에 관한 실험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김재훈 · 오원석 · 김용배 · 양순재 · 박종섭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미세혈관 문합술은 수지의 재접합술 및 유리피판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속 발전하여 이제는 성형외과 의사의 기술 술기로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미세혈관문합술의 기술적인 발전 및 경험의 축적으로 실패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지재접합의 실패율은 12-30%에 이르고 있다. 미세혈관문합술의 실패원인은 기술적인 문제, 혈소판 기능장애, 혈액응고 그리고 혈관경축(vasospasm)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중 혈관경축은 임상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수술중 발생하는 혈관경축은 1985년 Hunter에 의해 처음 보고가 된 이래로 많은 실험과 문헌고찰이 있었으나 확실한 발생 기전과 해결책에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실험적으로 기계적 자극, 혈관수축 물질인 serotonin 도포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저자들은 실험적인 임상실험에 접근하기 위해 epinephrine 국소도포에 의한 혈관경축을 유발시킨후 여러종류의 혈관 이완제중 비교적 임상 이용이 용이한 약물을 선택하여 이를 국소도포하고 이들의 혈관이완 효과를 Video monitor로 반복하여 비교 관찰 하였다. 또한 이렇게 반복하여 정확한 관찰을 함으로서 좀더 확실한 실험 결과와 임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